법을 바로 보는 눈 있어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⑲ 부처와 마군

"요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법은 알지 못하고 양처럼 코에 대이면 뭐든지 입안으로 집어넣고 있다. 참으로 종인지 상전인지 가리지 못하고, 손님인지 주인인지 구별을 못하는 꼴이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그릇된 마음으로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 진정한 출가인이라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속물이 가득한 세속적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무릇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소의 일상에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처와 마군(魔軍)을 가려내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며 범부와 성인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참된 출가인이라 할 것이다. 만약 마군과 부처를 가려내지 못하면 바로 속가(俗家)를 나와 불가(佛家)에 들어왔으나 업을 짓는 중생일 뿐이요 진정한 출가인은 아닌 것이다. 지금 부처와 마군이 한 몸이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물과 우유가 섞인 것처럼 되어 있다면 거위는 우유를 먹을 것이요, 눈 밝은 수도자라면 마군과 부처를 함께 물리쳐 버릴 것이다. 그대가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애증(愛憎)에 얽혀 있으면 나고 죽는 바다 속에 떴다 잠겼다 하고 말 것이다."

수행자는 우선 법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법문이다. 말하자면 정견(正見)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임제록〉에서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 법을 간택하는 안목이 없으면 자칫 닥치는 대로 먹이를 입안에 집어넣는 양처럼 정법의 맥(脈)을 알 수 없는 사견(邪見)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출가자는 속된 생각을 벗어나 도(道)를 향하는 정신이 투철하여 비속한 생각을 떨쳐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가자는 누구에게나 도를 깨닫고자 하는 본분공부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공부를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을 기약해서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이다.

〈보요경(普曜經)〉에는 출가사원(出家四願)을 설하고 있다. "1. 중생의 곤액(困厄)을 구제하는 것. 2. 중생의 혹장(惑障)을 제거해 주는 것. 3. 중생의 사견(邪見)을 끊어주는 것. 4. 중생의 고륜(苦輪)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종문(宗門)의 정견이란 자성을 직시하여 경계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생멸심이 멈춰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도 받지 말아야 한다. 설사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모두 흡수해버려 심체(心體)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분별경계에서 일어나는 망념의 알음알이를 가지고 선지를 터득할 수 없다. 때문에 정견을 가진 정인(正人)이라야 진정한 출가자라는 것이다. 이론에 밝은 말의 논리나 현학적인 변재를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인의 역할을 말하면서 "정인(正人)이 설사 사법(邪法)을 설해도 그 사법이 정법이 되지만 사인(邪人)이 정법을 설하면 정법이 사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 출가자가 마군 노릇을 하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책하고 있다. 마군이란 결국 정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마(魔)란 범어 마라(Mara)를 줄여 쓴 말로 악자(惡者), 살자(殺者), 장애자(障碍者)로 번역되는 말이다. 좋은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한다.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 하여 도가 높아질수록 마군이 치성해진다 하였다. 부처님 생애를 여덟 폭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팔상도(八相圖)에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 있는데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시켰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정견을 갖추지 못한 사견(邪見)으로 하는 말을 마설(魔說)이라 하고 선(禪)에도 마선(魔禪)이니 사선(邪禪)이니 하는 말도 있다.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는 애증(愛憎)에 얽혀 있으면 생사의 바다에 부침하게 된다"는 마지막 구절의 말은 〈신심명〉의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揀擇)을 꺼릴 뿐(至道無難 唯嫌揀擇)"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식심분별(識心分別)을 벗어나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어야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⑲ 불교 세 가지 핵심경전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몸을 낮추어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눈높이가 맞을 때 친밀하고 대등하며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다. 비행 중에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뻣뻣이 선 채로 이야기하지 않고, 몸을 낮추어 탑승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절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다.

붓다가 고행을 중단하고, 수자타의 유미죽을 받아 드신 후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 좌정하여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곳에서 장소를 조금씩 옮겨가며 일주일동안의 사유를 일곱 번 마쳤다. 그 후 범천의 권청에 따라 법을 펴기로 결심하고, 대상을 누구로 할까 살피다가 250km 떨어진 바라나시 인근으로 떠나가 여전히 고행하고 있는 다섯 명의 고행친구[후의 오비구(五比丘)]를 찾아가 첫 설법을 한다. 그것이 〈초전법륜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갖춘 불교가 성립한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설법이 〈무아상경(無我相經)〉이고, 60명의 비구들에게 전도선언 후 가야시사로 가서 가섭 삼형제와 그들을 따르는 배화교도들에게 세 번째로 한 설법이 〈연소경(燃燒經)〉이다. 이 세 개의 경전이 불교의 핵심경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공부를 하는 이라면 누구나 짤막하지만 중요한 이 세 개의 경전을 숙지해야 한다.

붓다께서는 전도선언 후, 가야 인근의 우루벨라 숲에서 500명의 교도를 거느린 우루벨라 가섭, 그 근처 니련선하에서 300명을 거느린 나디가섭, 가야시사에서 200명을 거느린 가야가섭 등 1000명을 교화하기로 하였다. 불을 뿜는 독룡을 섬기는 사당에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독룡을 발우에 가두어 아침에 온전한 모습으로 배화교도들 앞에 선 붓다를 보고, 배화교도들이 놀라는 장면은 이때의 일이다. 이렇게 배화교도 1000명을 개종시켰다.

개종한 배화교도들은 불을 숭상하는 사화외도(事火外道)였으므로 1000명을 대상으로 가야 인근의 상두산(象頭山)에서 설한 〈연소경(燃燒經)〉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불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감각기관 · 감각대상 · 감각의식 · 감각기관 접촉 · 감각기관 접촉의 느낌[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 곧 6근 · 6경 · 6식과 6근의 접촉[觸]과 6근의 접촉으로 인한 세 가지 느낌[受]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貪瞋痴]의 삼독(三毒)으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 늙음 · 죽음 · 우울 · 슬픔 · 고통 · 불쾌 · 절망[生老病死憂悲苦惱]으로 불타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를 싫어하여 멀리해서 18계[6근 · 6경 · 6식]와 촉수(觸受) 곧 근경식촉수(根境識觸受)가 사라지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는 지혜가 생겨서, '태어남이 멈추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으니,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북전(北傳)대장경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전은, 〈잡아함경〉 197번째 경인 〈시현경(示現經)〉이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 이른바 눈이 불타고 있고, 형상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으로 인한 느낌,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 귀 · 코 · 혀 · 몸 · 뜻도 불타고 있고,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으로 인한 느낌, …도 또한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의 불로 불타고 있느니라."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⑮ 닦음의 길 5

계율, 깨침 향한 첫 걸음

"계율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입니까? 아니면 깨침을 향한 수행입니까?"

언젠가 한 불자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계율을 중시하지 않는 오늘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질문이었다. 물론 계율은 '~해야 한다(ought to)' 는 구조로 이루어진 윤리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깨침을 향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불교의 목적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붓다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以戒爲師)' 고 할 정도로 이를 중시하였다. 그만큼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흔히 계율이라고 부르지만, 계(戒)와 율(律)은 본래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계가 자율성이 강한 반면 율은 타율성이 요구되는 규범이다. 계(戒)는 범어인 '실라(śīla)' 를 번역한 것으로 '습관' , 또는 '행위' 를 의미한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양치와 세수를 하는 것처럼,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습관처럼 안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계를 어기면 양치를 안 한 것처럼 마음에 불편함이나 찜찜함을 느낀다. 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목욕인 참회를 하면 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계에 담긴 실존적 의미다.

계는 출가와 재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삶의 기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계(五戒)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계(不殺生戒)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계(不妄語戒),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불투도계(不偸盜戒), 삿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불사음계(不邪淫戒), 술을 마시지 않는 불음주계(不飮酒戒)가 불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규범이다. 재가의 경우 오계를 어긴다고 해서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에 율(律)은 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율은 규율이나 규칙을 의미하는 범어 '비나야(vinaya)' 에서 유래된 말이다. 율은 단체 생활을 하는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강제성이 수반된다. 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따른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군대의 군율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통 계와 율을 합쳐서 한 단어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구는 250계(戒),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남방의 경우 비구가 227계, 비구니가 311계를 받는데, 부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계율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붓다가 제정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계율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부른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계율이 많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붓다는 입멸하기 전 아난에게 소소계(小小戒), 즉 가벼운 계는 버려도 좋다고 말했지만, 당시 어떤 것이 소소계인지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붓다 입멸 후 모인 제1결집에서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하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은 버리지 않고 지킨다' 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용〉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知恥近乎勇)"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만 아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삶의 에너지다. 불교의 계율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기준이 되는 덕목이다. 이를 기준으로 성찰해보면 어떤 것이 잘못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계율은 올바른 삶의 기초이자 깨침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이다. 아무리 선정과 지혜를 열심히 닦는다 해도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깨침을 향한 긴 여정에서 선정과 지혜라는 두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계율에서 나온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